

도쿄 올림픽 사상 첫 홀수 해 개최

1월부터 숨 돌릴 틈 없이 예정된 스포츠 행사 대한체육회장 선거·2022년 월드컵 여정 등

2021년은 사상 최초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홀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계 올림픽이 1896년, 동계는 1924년 1회 대회가 열렸으며 이후 계속 4년 주기로 열리거나, 세계 대전으로 대회가 취소된 적은 있지만 1년이 미뤄진 적은 없었다.

원래 올해 열리려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 7월로 연기되면서 2021년은 올림픽이 열리는 사상 첫 홀수 해로 남을 전망이다.

그러나 2021년에는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 7차전과 도쿄 올림픽 개막식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날짜(7월 23일)가 겹치고, 도쿄 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8월 8일 이후 불과 10일 만에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막을 올리는 등 올해 코로나19로 숨죽였던 많은 스포츠 행사들이 말 그대로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진다.

1월에는 국내 '체육 대통령'을 뽑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8일로 예정돼 있다.

2월에는 1월부터 10일간 카타르에

서 FIFA 클럽월드컵이 열리는데 여기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8년 만에 정상에 오른 울산 현대가 출전한다.

또 사상 최초의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2월 19일과 24일 중국을 상대로 홈 앤드 어웨이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3월부터는 겨울철 실내 스포츠 농구, 배구의 포스트 시즌과 봄에 시작하는 야구, 축구의 시즌 개막 분위기가 맞물리는 때다.

또 3월에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가기 위한 여정을 재개한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월드컵 예선이 3월 재개돼 우리나라는 3월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와 만나고 6월에는 북한, 레바논과 차례로 맞붙는다. 4월에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을 비롯해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최지민(뎀파이어) 등이 활약하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가 개막한다.

또 같은 시기에 남녀 골프 메이저 대회도 나란히 펼쳐지는 데, 4월 1일부터 나흘간 여자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파레이션, 8일부터 11일까지는 '명인 열전' 마스터스가 각각 열린다.

1년 미뤄진 도쿄 올림픽이 이번에는 예정대로 열리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지구촌 대축제로 거행된다.

대회가 열릴 수 있다면 코로나19를 이겨낸 인류의 대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8월 18일에는 중국 청두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개막하고, 8월 24일부터는 도쿄 패럴림픽이 이어지는 등 2021년을 '풍성한 스포츠의 해'로 만들어줄 절정의 시간이 지나간다.

도쿄 올림픽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종목이 많다.

가을에는 10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과 프로농구, 프로배구 개막이 팬들을 기다리며 올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전국체전도 '올림픽 전사'들의 출전으로 더욱 빛을 낼 태세다.

동계 종목 선수들은 2022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막판 스퍼트를 일으키고 눈 위에서 치열하게 벌이며 2021년 막바지를 뜨겁게 불태운다.

연합뉴스

KB 박지수 통산 10번째 '최우수선수' 제3대 도복심협회장 고석용 대표이사 당선

2020-2021시즌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 이주연은 MVP 선정

청주 KB의 센터 박지수(22)가 KB 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8일 "언론사 기자단 투표에서 박지수가 총투표수 84표 중 66표를 받아 3라운드 MVP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박지수는 인천 신한은행 김단비(13표)와 아산 우리은행 김정은(5표)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쳤다.

이미 현역 선수 중 라운드 MVP 최다 수상자인 박지수는 올 시즌 2라운드에 이어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10번째로 라운드 최우수선수가 됐다.

신정자(전 신한은행)의 WKBL 통산 라운드 MVP 최다 선정 기록(12회)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박지수는 3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32분 36초를 뛰면서 22.2득점 15.2리바운드 6.2어시스트 2.0블록을 기록했다.

특점, 리바운드, 어시스트와 공헌도 부문에서 전체 1위, 블록에서는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12일 용인 삼성생명전에서는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 득점(33점) 타이 기록을 작성했고, 17일 부산 BNK와 경기에서는 자신의 세 번째 트리플더블(10득점 14리바운드 11어시스트)을 달성하기도 했다.

WKBL 심판부와 경기 운영 요원 투표로 선정하는 기량발전상(MIP)은 삼성생명 이주연에게 돌아갔다.

이주연은 총투표수 33표 중 13표를 획득해 개인 통산 세 번째로 라운드 MIP에 선정됐다.

이주연은 3라운드에서 7.0득점 2.0리바운드 2.4어시스트 1.2스틸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복심협회 고석용(57·사진) 한라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복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단일후보로 출마한 고석용 후보자를 제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고석용 신임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복심협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석용 회장의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이다.

송은범기자

김보경 '13억 5800만원'으로 국내 연봉 1위

2020 K리그 연봉 지출 현황 K리그1·2서 전북·제주 최다

2020년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뛴 한국 선수 중 최다 연봉자는 전북 현대의 미드필더 김보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시즌 K리그1(1부리그) 11개 구단(군팀 상주 상무 제외)과 K리그2(2부리그) 10개 구단의 선수단 연봉 지출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연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승리수당, 무승부 수당, 출전수당, 공격포인트 수당 및 기타 옵션 등)을 모두 포함한 실질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대상은 2020시즌 각 구단에 등록된 적이 있는 모든 선수다.

예년에는 시즌 종료 시점 현재 각 구단에 등록된 선수들만 산출 대상에 포함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즌 도중에 이적이거나 임대, 계약해지 등으로 떠난 선수들에게 지급된 연봉까지 모두 포함해 정확도를 높였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수당은 2020시즌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FA)컵 경기에 대한 수당을 포함했다.

2020시즌 K리그1 11개 구단 소속 선수 전체(국내·외국인 선수 포함) 연봉 총액은 952억422만5000원이었

다.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9917만 2000원이다.

구단별로는 올해 K리그1과 FA컵 우승으로 더블을 달성한 전북이 가장 많은 169억629만원을 지출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8년 만에 정상에 오른 울산 현대가 146억3919만2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FC서울(94억216만5000원)이 3위, 수원 삼성(87억450만)이 4위였다.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북 4억 3349만5000원, 울산 3억6598만원, 서울 2억478만6000원, 수원 1억8134만4000원 순이다.

국내 선수 중 최고 연봉 1~5위는 전북과 울산 선수들로 채워졌다.

전북 김보경이 13억5800만원으로 국내 선수 연봉 1위에 오른 가운데 전북 홍정호(12억6100만원)에 이어 울산의 이청용(12억5800만원), 조현우(10억9600만원), 윤빛가람(10억 6500만원)이 3~5위에 자리했다.

외국인 선수 중 최고 연봉 선수는 대구FC 세징야(14억3900만원)이었다. 울산 주니오(11억1300만원), 대전하나시티즌 안드레(10억7600만원), 인천 유나이티드 무고사(10억 3400만원), 서울 오스마르(9억8900

만원) 순으로 2~5위를 차지했다.



전북 현대 미드필더 김보경.

K리그2 10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421억396만7000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686만3000원이었다.

구단별로는 올 시즌 K리그2 우승으로 강등 1년 만에 K리그1로 복귀하게 된 제주유나이티드가 가장 많은 74억576만원을 썼다.

이어 경남FC가 69억2906만6000원, 대전이 68억5344만1000원을 지출했다.

연합뉴스



'SON' 없이 안돼 28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상대 선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다. 이날 토트넘은 손흥민이 교체된지 3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연합뉴스

축
CONGRATULATIONS

수 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양 정 인
(주)요석산업 대표
(부: 양용준(위탁2리 노인회장) · 모: 부창우)

2020년 여성경제인의 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 제 자 매
(양철호·철영·정아)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주특별자치도
산악연맹회장**



양 봉 훈

제주특별자치도 산악연맹회장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산악회 일동

축
CONGRATULATIONS

진 급

육 군 준 장



김 수 광
(풍천초등학교 33회)


대한민국 육군 준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풍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 호 중 외 동문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양 산 해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농촌지도자 애월읍 임진감장회 일동